



hananimuibetop.org

부록 7c: 마가복음 10:11-12와 간음에서의 잘못된 평등

이 페이지는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는 혼인에 관한 연재의 일부이며, 다음 순서를 따릅니다:

1. [부록 7a: 처녀들, 과부들, 그리고 이혼한 여성들: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는 혼인](#)
2. [부록 7b: 이혼 증서 — 진실과 신화](#)
3. [부록 7c: 마가복음 10:11-12와 간음에서의 잘못된 평등](#) (현재 페이지).
4. [부록 7d: 질문과 답변 — 처녀들, 과부들, 그리고 이혼한 여성들](#)

이혼 교리에서 마가복음 10장의 의미

이 글은 마가복음 10:11-12를 오해하여, 예수님이 간음 문제에서 남녀의 ‘평등’을 가르치셨다거나 유대적 맥락에서 여자가 이혼을 시작할 수 있다고 시사한다고 보는 해석들을 반박합니다.

질문: 마가복음 10:11-12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혼 규정을 바꾸셨다는 증거인가요?

답변: 증거가 아닙니다 — 전혀 아닙니다. 마가복음 10:11-12에서 예수님이 (1) 여인도 간음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2) 여인도 남편을 ‘이혼’할 수 있다고 가르치신다는 생각에 반대되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그런 이해가 성경 전체의 가르침과 모순된다는 사실입니다.

신학적 주해의 핵심 원리는 어떤 교리도 단 한 구절을 근거로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영감된 책들과 저자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포함하여, 성경 전체의 맥락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것은 성경 교리의 일관성을 지키고, 고립되거나 왜곡된 해석을 막기 위한 근본 원리입니다.

다시 말해, 마가복음의 이 한 문장에서 끌어낸 두 가지 오해를 근거로, 예수님이 족장 시대부터 주신 하나님의 가르침을 여기서 ‘모두’ 바꾸셨다고 주장하기에는 그 함의가 너무 큼니다.

만약 이것이 정말 메시아의 ‘새로운’ 지시였다면, 다른 곳 — 특히 이혼 주제를 다룬 산상수훈 — 에서 더 분명하게 나타나야 합니다. 이를테면 다음과 같은 진술이 있어야 합니다:

“옛 사람들에게 말한 바, 남자는 아내를 떠나 다른 처녀나 과부와 결혼할 수 있다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남자가 아내를 떠나 다른 이와 연합하면 첫 아내를 상대로 간음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분명히 그런 말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0:11-12 주해

마가복음 10장은 맥락성이 매우 강합니다. 이 본문이 기록될 당시에는, 모세나 사무엘 시대와는 달리 최소한의 규칙만으로, 심지어 남녀 모두가 이혼을 시작할 수 있던 시기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힌 이유를 떠올려 보십시오. 이때는 족장들의 시대가 아니라 헤롯의 팔레스타인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유대인들은 혼인, 외모, 여성 권위 등 여러 문제에서 헬라-로마 사회의 관습에 큰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아무 이유로나 이혼할 수 있다는 교리

랍비 힐렐이 가르친 ‘아무 이유로나 이혼’ 교리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대로 더 젊거나 더 매력적이거나 더 부유한 집안의 여성과 결혼하려고 아내를 버리려 했던 유대 남성들에게 가해진 사회적 압력의 산물이었습니다.

이 사고방식은 오늘날에도 교회 안을 포함하여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남자들이 아내를 떠나 다른 여자와 연합하는데 — 대개 그 여성들 또한 이미 이혼한 사람들입니다.

세 가지 핵심 언어학적 포인트

마가복음 10:11의 진술에는 본문의 의미를 밝히는 세 개의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και λεγει αυτοις Ος εαν απολυση την **γυναικα** αυτου και γαμηση αλλην μοιχεται **ἐπ’ αὐτήν**

γυναικα (gynaika)

γυναίκα는 **γυνή**의 대격 단수형으로, 마가복음 10:11과 같은 혼인 맥락에서 일반적 의미의 ‘여자’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유부녀(아내)’를 가리킵니다. 이는 예수님의 답변이 혼약의 위반에 초점이 있음을 보여 주며, 과부나 처녀와의 새로운 합법적 연합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님을 뜻합니다.

ἐπί (epí)

ἐπί는 보통 “~위에, ~에, ~안에, ~과 함께”를 뜻하는 전치사입니다. 일부 번역은 이 구절에서 “~에 대하여/거슬러(against)”를 선택하지만, 언어학적·신학적 맥락을 고려하면 ἐπί의 가장 흔한 뉘앙스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NIV (*New International Version*)에서 ἐπί 832회 중 “against”로 번역된 것은 35회에 불과하며, 나머지 대부분은 “~위에, ~에, ~안에, ~과 함께”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αὐτήν (autēn)

αὐτήν은 대명사 αὐτός의 여성 단수 대격 형태입니다. 마가복음 10:11의 코이네 헬라어 문법에서 “αὐτήν(그녀를)”이 정확히 어느 여인을 가리키는지는 본문 자체만으로 특정되지 않습니다.

문법적 모호성은 두 개의 가능한 선행사 때문입니다:

- τὴν γυναῖκα αὐτοῦ(“그의 아내”) — 첫 번째 여자
- ἄλλην(“다른 [여자]”) — 두 번째 여자

두 표현 모두 여성, 단수, 대격이고 같은 문장 구조 안에 나타나므로, “αὐτήν”의 지시 대상은 문법적으로 모호합니다.

맥락을 고려한 번역

원문을 종합하여 역사적·언어적·교리적 맥락에 가장 부합하는 번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아내(γυναῖκα)를 버리고 다른 여자 — 곧 또 다른 γυναῖκα, 이미 누군가의 아내인 다른 여인 — 와 결혼하는 자는 그 여인(ἐπί) ‘위에/안에서/더하여/그 여인과 함께’ 간음하는 것이다.”

의미는 분명합니다. 합법적 아내를 버리고, 이미 다른 남자와 한 몸이었던 여인(처녀가 아닌 여인)과 연합하는 남자는 그 새로운 여인과 간음하는 것입니다 — 이미 다른 남자와 영혼이 결합된 여인과의 결합이기 때문입니다.

동사 “apolýō”의 실제 의미

마가복음 10:12가 여자가 법적으로 이혼을 ‘개시’할 수 있고, 따라서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 있다는 성경적 근거를 제공한다고 보는 견해는, 본래의 성경적 맥락과 맞지 않는 시대착오적 해석입니다.

첫째, 같은 절 안에서 예수님은 여자가 다른 남자와 연합하면 두 사람이 간음을 범한다고 결론지으십니다 — 마태복음 **5:32**에서와 정확히 같습니다. 그런데 언어학적으로 널리 번역본에서 “이혼하다”로 옮겨지는 동사 ἀπολύω(apolýō)의 참뜻을 오해한 데서 오류가 생깁니다.

현대 관습을 반영하면 “divorce(이혼하다)”가 되지만, 성경 시대에 ἀπολύω는 단순히 놓아주다, 풀어 주다, 떠나보내다 등 물리적·관계적 분리를 뜻했습니다. 성경적 용례에서 ἀπολύω 자체에는 법적 효력의 뉘앙스가 내포되어 있지 않으며, 형식적 법 절차를 함의하지 않는 ‘분리’ 동사입니다.

즉, 마가복음 **10:12**는 여자가 남편을 떠나 첫 남편이 아직 살아 있는 동안 다른 남자와 연합하면 간음을 범한다는 뜻일 뿐이며, 이는 법적 문제 때문이 아니라 여전히 유효한 언약을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결론

마가복음 **10:11-12**를 올바르게 읽으면, 성경 전체와의 일관성이 보존됩니다. 곧 성경이 처녀와 유부녀를 구분한다는 사실을 유지하고, 단 하나의 (번역이 부정확한) 문구에 근거해 새 교리를 도입하는 오류를 피하게 됩니다.